



23일 오후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에서 내년도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문화수도 광주'에서 만나자는 홍보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14위 · 전남 8위 '열심히 싸웠다'



23일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 체조 남고부 결승에서 광주의 최진성이 도마 연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와 전남이 지난해 보다 한 단계씩 상승, 각각 종합순위 14위와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광주는 금 43개, 은 33개, 동 53개를 따내며 2만9천349점을 획득해 목표인 13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4위를 기록했고, 전남은 금 51개, 은 59개, 동 64개를 따내며 3만7천780점으로 8위를 차지했다.

'힘차게 미래로! 하나되어 세계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경상북도 일원에서 7일 동안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23일 오후 김천 종합운동경기장에서 내년에도 빛을 보게 될 광주시에서 막을 내리며 폐막했다.

종합우승은 경기도에 돌아갔다. 경기도는 종합점수 7만6천54점을 얻어 경북(6만9천553점)을 제치고 대회 5연패를 달성하며 통산 18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엔 육상 세단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2관왕을 차지한 광주의 김덕현(20·조선대)이 차지했다.



전국체전 어제 폐막...경기 종합우승

사상 첫 광주서 MVP...김덕현 영예

광주·전남은 대회 마지막 날에도 메달 사냥에 박차를 가하며 순위 경쟁에 힘을 보탰다.

▲광주=고승진(조선대)은 2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레슬링 남대부 자유형 120kg에서 울산의 허중호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체조에서는 막관 금맥을 깨내며 광주의 순위상승에 기여했다.

김정삼(광주체고 2)은 체조 남고 도마에서 금빛연기를 펼쳤고, 최진성(광주체고 3)도 평행봉에서 금을 따냈다.

배물음(광주체고 2)은 마루와 도마에서 금빛연기를 뽐내며 2관왕에 올랐으며 이슬

(광주체고 3)도 이단평행봉에서 소중한 금을 추가했다.

광주일고는 남고 야구에서 전북 전주고와 공동 금메달을 수상했다.

▲전남=폐막 하루전까지 대구, 대전, 인천과 오차범위내에서 8~11위를 놓고 치열한 다투를 벌이던 전남은 막관 수영과 체조, 단체종목에서 선전해 8위를 달성했다.

한규철(전남연맹)은 수영 남자일반 자유형 20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고, 여자일반 자유형 200m에서는 김현주(대불대)가 소중한 금맥을 쫓았다.

광양제철고는 남고 축구에서 서울 언남고

■시·도별 종합순위(최종)

순위	시도	득점	금	은	동
1	경기	76,054	126	119	127
2	경북	69,553	81	88	108
3	서울	65,277	95	90	108
4	충남	42,111	51	60	73
5	부산	41,748	47	52	90
6	경남	41,330	51	51	63
7	강원	41,279	69	51	95
8	전남	37,780	51	59	64
9	대구	37,054	41	46	55
10	인천	36,730	46	38	72
11	대전	34,947	51	48	73
12	전북	32,798	34	46	64
13	충북	31,120	43	39	74
14	광주	29,349	43	33	53
15	울산	22,174	38	39	35
16	제주	10,844	17	21	34

를 3-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고, 백제고는 여고 핸드볼에서 경기도 의정부여고를 27-25로 꺾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천=최현배기자 lion@kwangju.co.kr

“내 기록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도전”

'마의 17m'를 넘은 육상 세단뛰기 국가대표 김덕현(21·조선대)이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우수선수(MVP) 영예를 안았다.

김덕현은 체전 마지막날인 23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체육기자연맹 소속 기자단 투표에서 수영의 박태환(17·경기고)과 정지연(17·경기체고) 등 후보들을 따돌리고 만장일치로 대회를 가장 빛낸 선수로 뽑혔다.

김덕현은 지난 19일 육상 남자 대학부 세단뛰기에서 마지막 6차 시기에 17m07를 뛰어 지난 달 오키야마 육상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종전 한국기록(16m88)을 19cm나 갈아치웠다.

특히 '마의 벽'으로 불리던 17m를 국내 최

■ 'MVP' 조선대 김덕현

초로 뛰어넘은 김덕현은 한 달 만에 자신의 기록을 깨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오는 12월 도하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부풀렸다.

아시아게임을 한 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펼쳐진 전초전 성격이 짙었던 만큼 이번 체전에서 김덕현은 가장 빛나는 태극마크였다는 평가다.

김덕현은 “최근 기록이 상승세에 있고, 컨디션이 좋아 아시아게임 메달은 딸 수 있다”

면서 “세계 기록 범위인 17m에 진입했기 때문에 내 기록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도전해볼 작정이다”고 말했다.

김덕현은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16m78로 한국기록을 세우면서 세단뛰기의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은 뒤 11월 마카오 동아시아대회에서 다시 16m79로 한국기록을 갈아치우고 우승해 국제경쟁력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달 영주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남녀대학대회에서 17m04를 뛰어 한 차례 17m대를 뛰어넘었지만 당시에는 기준종속(+2.0)을 넘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번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대다수 정상급 선수들이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에 초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는 탓에 기록은 '평년작'이었다.

'깜짝 신공' 김재형(16·순천고)은 양궁 남자 고등부 70m에서 349점을 쏘아 이번 체전에서 유일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기록은 모두 59개나 쏟아졌으나 최근 개인 기량이 상향평준화하고 있는 인라인롤러와 수중에서 나온 기록이 각각 42개와 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종목의 한국기록 수립자는 ▲육상 세단뛰기 김덕현 ▲여자 장대 높이뛰기 최윤희(20·원광대) ▲사격 50m관총 이규섭(28·경북체육회) ▲수영 여자 자유형 800m 정지연(17·경기체고) ▲남자 개인혼영 200m 한규철(25·전남연맹) ▲여자 역도 53kg급 용상 임정화(20) ▲48kg급 인상 최명식(34·이상 울산시청) 7명이었다.

■ 기록으로 본 광주·전남 성적

김재형 (순천고) 양궁 세계新 육상·수영서 각각 한국新

다관왕은 5관왕 2명, 4관왕 7명, 3관왕 34명, 2관왕 112명 등 모두 155명이 나왔다.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 박태환(17·경기고)은 마지막 날 남자 고등부 자유형 200m와 혼계영 400m에서 1위에 올라 계영 400m, 800m, 자유형 100m까지 모두 5개 종목을

석권, 최다관왕이 됐다.

여자 수영 류운지(21·서울대)도 이날 여자 일반부 혼계영 400m에서 우승하면서 자유형 50m, 100m, 계영 400m, 800m를 포함해 금메달 5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와 전남은 깜짝 세계신기록과 한국신

기록 2개를 작성하는 등 기록 종목에서 선전을 보였다.

전남의 김재형이 양궁 남자 고등부 70m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고, 한규철(전남연맹)은 수영 개인혼영 2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또 조아름(대불대)이 수영 여자일반 자유형 8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6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왔다.

체전 사상 처음으로 광주에 대회 MVP를 안긴 김덕현(조선대)은 육상 남자대학부 세단뛰기에서 17m 07cm를 뛰어 한국신기록 작성과 함께 오는 12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기대를 부풀렸다.

또 박태경(광주시청)은 육상 남자일반부 110m허들에서 이애라(광주체고)는 역도 3고부 75kg급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오르는 등 대회신기록 7개와 대회신기록 타이거기록 1개를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